

대한

자랑스러운



민국

계승 ·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 1 • 大韓民國이 自由民主 체제로 建國된 것은 行운이었습니다 2
- 2 • 大韓民國은 建國大統領의 피나는 노력으로 自由民主主義 체제로 건국될 수 있었습니다 4
- 3 • 自由民主主義 체제는 大韓民國 번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6
- 4 • 大韓民國은 지도자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제·문화 번영을 성공적으로 이룩해 냈습니다 9
- 5 • 신생독립국 중 經濟발전과 民主化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오로지 大韓民國 뿐입니다 15
- 6 • 大韓民國은 建國이후 지금까지 自由民主主義 체제를 전복 하려는 敵과 從北세력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18
- 7 • 자랑스러운 自由 大韓民國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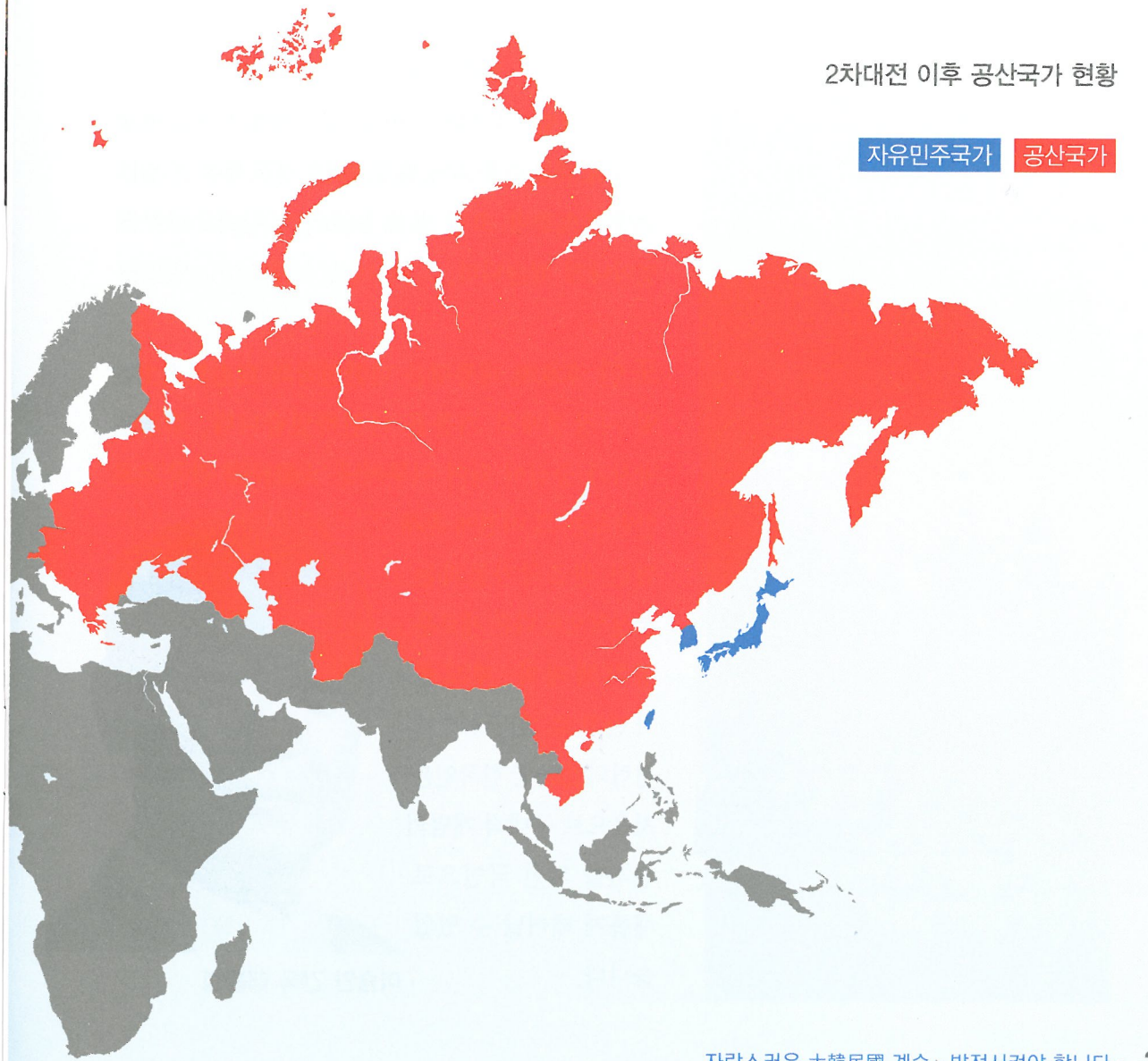
1_ 大韓民國이 自由民主 체제로 建國된 것은 行운이었습니다

삼국시대 및 고려·조선 등 봉건국가와 日帝 침략기를 거치는 수천년동안 선조들이 살았던 나라는 단 한 번도 自由民主主義 체제를 향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랜 봉건체제와 극심한 일본의 억압 속에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제대로 된 自由를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안으로는 절대군주의 통치하에 있었고 밖으로는 거대 中國의 눈치를 보며 재산과 인명을 바치는 등 백성들의 自由와 권리를 보장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日帝가 물러나고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新生 독립국들은 西歐 제국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共產主義 체제로 건국되었습니다. 특히 한반도가 속한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소비에트 공화국으로부터 시작된 共產主義 이념이 동유럽 뿐만 아니라 중국과 몽골·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등 전역에 몰아쳤습니다.

한반도에도 소련이 북한을 점령함으로써 共產主義 위협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自由民主主義 체제의 미군이 38도선 이남에 주둔하면서 한반도의 共產主義化를 저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스탈린은 서울의 영사관을 통하여 비밀리에 한국의 共產主義者들을 지원하고 통제하였으며 한반도를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들고자 共產主義 확산을 진두지휘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내 共產主義者들은 소련의 지시를 받고 미군 철수 및 大韓民國 건국 저지를 위한 극렬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의 自由民主主義 세력은 미국의 건국 지원을 통해 독자적인 정부를 세우고 한반도의 共產主義化를 막았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꽃피었던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共產主義 체제로 전환되는 순간에 기적과도 같이 한반도 남쪽만 유일하게 유라시아 대륙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自由民主主義 체제를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2 _
**大韓民國은
 建國大統領의
 피나는 노력으로
 自由民主主義 체제로
 건국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에게는 自由民主主義 체제를 지켜나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건국대통령인 李承晩 박사(1875~1965)는 한반도 출신 중에 첫 번째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선각자로 서구식 自由民主主義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李承晩 대통령은 1945년말 모스크바 3상회의(미국·영국·소련) 때 5년 信託統治를 받아들일 생각이었던 미국의 구상을 무산시켰으며, 해방공간의 대혼란을 수습하고 韓國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함으로써 소련 共產主義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또한 李承晩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自由民主主義 및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李承晩 박사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낸 ‘大韓民國 건국’으로 한반도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왕조국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치체제와 제도를 기반으로 한 국가가 성립되었으며, 한국인은 처음으로 근대적 개념의 권리를 지닌 국민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더불어 李承晩 대통령은 韓美 안보동맹의 틀도 마련했습니다. 李承晩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약소 국가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과 동맹을 결성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6·25 동란 휴전방침을 결정하자 휴전안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韓美 同盟條約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거제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무리수를 뒤가며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토대인 韓美相互防衛條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大韓民國은 共產主義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굳건한 안보 하에 오로지 경제발전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제 반공포로 석방(1953.4) _美 국립문서기록보관청

3 _ 자유민주主義 체제는 大韓民國 번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948년 건국 당시 大韓民國은 전세계에서 최극빈 국가에 속했습니다. 여기에 무려 3년여에 걸쳐 장기전인 6·25 동란까지 겪고 나니 참담한 생활상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민간인과 군인의 인명피해는 200萬명에 이르렀고, 전쟁 피해액만 당시 시가로 4,106億환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수도·도로·철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산업이라고 내세울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1950년대 말까지 미국의 원조기금이 유일한 외화조달 창구였고, 1961년 1인당 국민소득이 70 달러 수준으로 당시 UN에 등록된 120여개 나라 중 119위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도 지금은 저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필리핀·인니 등 동남아 국가들보다 훨씬 못 사는 低개발국가였습니다.

大韓民國 수도 한복판에 건설된 장충체육관도 필리핀 기술자들의 설계로 건설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또한 경제개발



6·25 동란 당시 사진

당시 朴正熙 대통령은 경쟁자였던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으로부터 아시아 외교무대에서 조차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일이 잦아 자존심이 상했다니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반면 共產主義를 채택했던 북한의 사정은 大韓民國보다 경제산업면에서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북한은 日帝가 대륙침략의 기지로 삼기위해 건설했던 중공업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었고 풍부한 천연자원과 소련·중국의 무차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大韓民國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 있었습니다.

남북한 경제력 비교, 해방 직후

	남한	북한	비교(기준년도)
인구(萬명)	2,019	975	1949
국민총생산(億달러)	7.1	3.9	1949
식량생산량(萬톤)	345.4	124.4	1950
수산물생산량(萬톤)	21.6	27.3	1949
석탄생산량(萬톤)	112.9	400.5	1949
발전시설용량(萬kW)	23.1	104.7	1950
철도총연장(km)	4,423	3,815	1950
도로총연장(km)	24,932	13,549	1949
무역총액(億달러)	1.4	5.1	1949

그러나 북한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共產主義 체제로 인해 자유로운 경쟁과 근로 동기는 물론 인간의 창의성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발전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大韓民國은 자본주의 경제 속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어 나갔습니다. 마침내 197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규모와 비슷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북한과 경제비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大韓民國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통일獨逸과 벨기에 정도의 격차라고 하니 과연 상전벽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大韓民國이 共產主義 체제가 아닌 사유재산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自由民主主義 체제를 채택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련을 비롯해 동유럽은 물론 수천년간 한반도보다 잘 살았던 中國조차도 오랜 기간 비효율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共產主義 체제로 인해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경제력 비교 (2010년말 기준, 한국은행)

	남한	북한	남/북(배)
인구(千명)	48,875	24,187	2.0
경제성장률	6.2	- 0.5	
명목 GNI(十億원)	1,173,123	30,049	39.0
1인당 GNI(萬원)	2,400	124	19.3
무역총액(億달러)	8,915.9	41.7	213.8
수출(億달러)	4,663.8	15.1	308.9
수입(億달러)	4,252.1	26.6	159.9
발전량(億kWh)	4,747	230	20.7
쌀(萬톤)	429.5	185.3	2.3
자동차(萬대)	427.2	0.4	1,068.0
도로총연장(km)	105,565	25,950	4.1

한반도를 무시하고 주인노릇을 하던 中國이 共產主義 채택과 문화대혁명 등으로 수십년간 정체된 사이에 自由民主 체제를 채택한 大韓民國은 역사상 처음으로 中國을 무시할 수 있는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中國이 등소평 이후 共產主義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면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개방을 하는 등 자유민주 국가들의 市場經濟를 대폭 수용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 大韓民國이 自由民主主義 체제로 건국된 것은 참으로 幸運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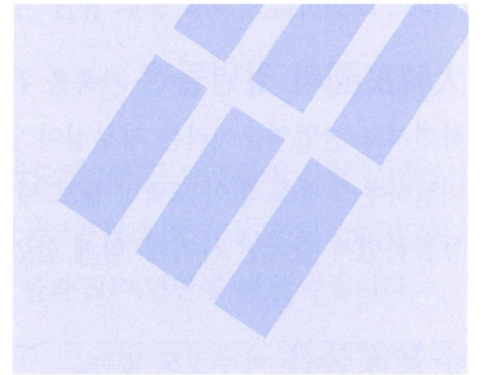
日帝 침탈기와 6·25 동란의 비극 속에서도 ‘잘 살아보자’는 한 가지 一念으로 어려운 고난을 극복해 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속에 ‘경제개발계획’ 수립당시 大韓民國은 교육열에 불타는 국민 말고는 아무런 자원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大韓民國 국민들은 自由民主主義 체제 하에서 지도자를 믿고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이룩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戰에서 大韓民國 아들이 흘린 피는 경제개발의 종자돈이 되었고, 태양이 내리쬐는 열사의 중동에서 가족들을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을 한 근로자들과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산업발전의 윤활유가 되었습니다.

경제개발 추진당시 국제사회의 지원 여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朴正熙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위해 해외자금을 차입하려 하였으나 美國은 쿠데타 군사정부라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西獨으로부터 광부와 간호사 파견을 대가로 경제개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고, 西獨을 방문한 朴正熙 대통령이 광부 및 간호사들과 만찬을 하면서 ‘다시는 국민들이 해외에서 이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함께 大韓民國을 잘살게 만들자’고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자 참석자 모두가 평평 따라 울었던 逸話는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고 하겠습니다.

4 _
大韓民國은 지도자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제·문화 번영을 성공적으로 이룩해 냈습니다



서독 연설 이후 눈물을 보이시는 육영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1964.12)

_한국학중앙연구원





1970년대 초 정부에 의해 시행된 새마을 교육 _한국학중앙연구원



새마을 운동(1972.3) _서대문구



1967.10



2007.5

포항제철 건설 前後 포항시 대승면 일대 전경(1967.10 / 2007.5) _포스코 홈페이지

국내에 있는 국민들도 오로지 잘 살아가기 위해 푹푹 뭉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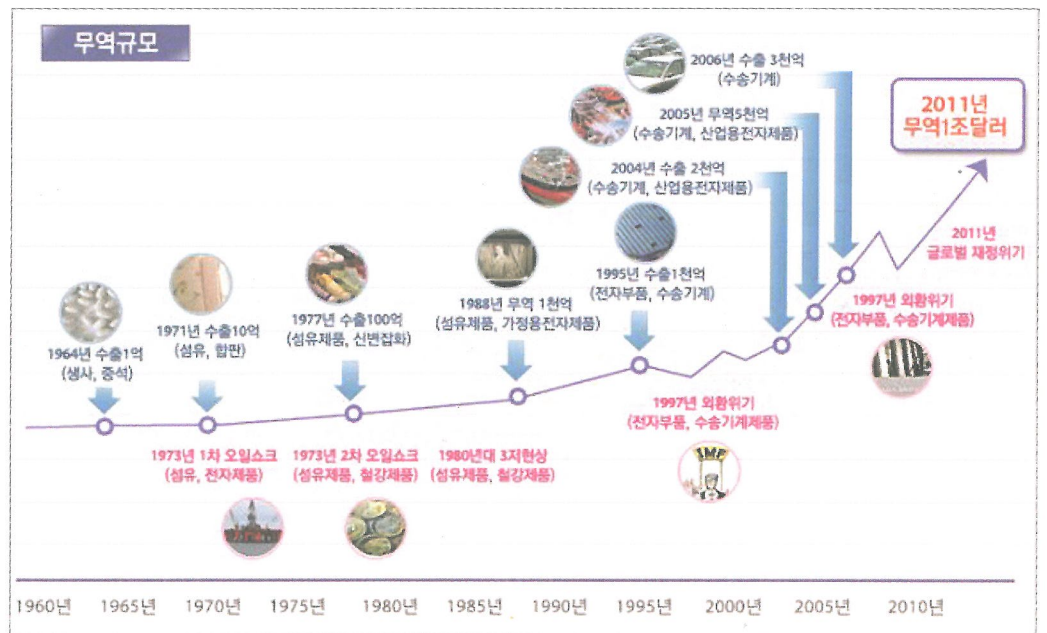
大韓民國의 청년들은 가족을 위해 3D업종도 마다하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도 산업역군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農村에서는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겨울철 비닐하우스 등도 없이 도박과 술로 세월을 보내는 일이 많았지만 '잘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에 동참하면서 全國民 사이에 '함께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企業家들은 아무것도 없는 大韓民國에 오로지 기업가 정신으로 건설·신발·섬유 등 경공업 분야부터 제철·석유화학·반도체 등 중화학 분야까지 도전과 열정을 불살랐습니다. 모두가 비전이 없고 선진국에 밀려 망한다며 하지 말라고 말렸던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全 산업에 과감히 뛰어들어 결국 성공을 이루어 냈습니다.

2011 세계 속 한국		
지표	순위	내용
교역규모	9위	8,920億 달러
수출	7위	4,660億 달러
선박 수출	1위	424億 8,340萬 달러
반도체 매출액	2위	280億 9,700萬 달러
휴대폰 출하량	2위	2億 3,600萬개
자동차 생산	5위	427萬 2,000대
포천 세계 500대 기업	8위	14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5위	34명(100명당)
1인당 GDP	27위	2萬 9,997달러

지도자와 全國民이 일심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경제개발 시작 당시 소말리아 수준에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변방 폐허 속의 大韓民國이 드디어 해낸 것입니다.

지금 大韓民國은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조선 1위, 반도체 1위 등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이내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모든 선진국들이 산업혁명을 통해 200여년간 이뤄낸 경제발전을 大韓民國은 불과 50여년만에 해낸 것입니다.



2011년 한국무역 1조달러 달성 _한국무역협회

어떤 西歐의 선진국도 大韓民國처럼 全 산업분야가 골고루 발전된 나라는 없습니다. 大韓民國만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톱클래스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은 그리스와 로마 등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유산 덕에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大韓民國은 명실공히 경공업부터 중공업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물론 아프리카 등지에도 大韓民國 상품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大韓民國 국민들은 해외에서 달라진 위상과 넘쳐나는 'Made in Korea'를 보면서 무한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2차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중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중추세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2011.11.29~12.1) _청와대

西歐 선진국들은 이러한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며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중국과 동남아·아프리카 등은 산업화와 새마을 운동을 앞다퉀 배우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는 西歐 선진국들마저 大韓民國의 경험과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영함(DDH-981) _해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_공군



장보고-Ⅰ급 잠수함 _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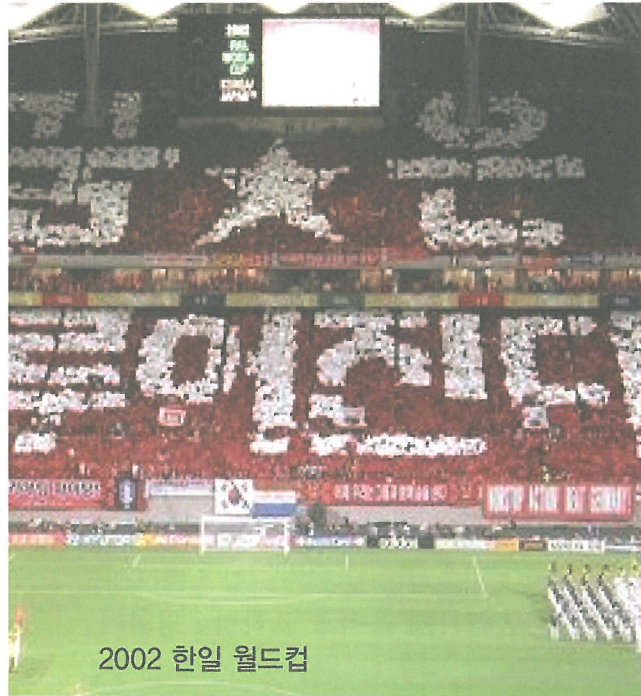
산업화를 이루고 나니 사회·문화·스포츠·예술·국방 등 全분야의 균형있는 발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력의 척도로 간주되는 올림픽에서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국제콩쿠르나 국제 기능경진대회에서 大韓民國 국민들의 우수성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또한 6·25 동란당시 한 대도 없었던 탱크를 생산·수출하게 되었고 최첨단 이지스함 건조는 물론 F-16급의 T-50 고등훈련기 및 잠수함·각종 미사일도 자체 생산하는 등 국방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大韓民國 음식과 드라마·영화에 이어 K-POP까지 全세계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大韓民國을 동경하게 되었고, 大韓民國 국민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大韓民國은 경공업부터 중공업까지 산업분야는 물론 사회·문화·예술 등의 全영역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西歐의 선진국들도 大韓民國처럼 全분야에서 골고루 발전된 나라는 드뭅니다.

이제 大韓民國은 올림픽과 월드컵 유치·UN사무총장 선출·선진국 클럽인 OECD와 G20의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높아진 大韓民國의 위상 덕분에 국민들은 비자 없이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들을 방문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과거 中國에 속박당하고 日本으로부터 게으르고 더럽고 못사는 국민으로 무시당하고 서구인들에게는 지구촌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미미했던 大韓民國이 이제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당당한 국제사회의 주역으로서 대접받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수천년간 왕조시대를 이어오던 한반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自由民主체제 국가가 건국된 것은 하나의 모순이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백성들은 임금과 日帝가 위로부터 베풀던 시혜 차원의 '제한된 自由'를 누렸을 뿐이었기 때문에, 大韓民國 建國 당시부터 제도적으로 자유가 보장된 것은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선거를 실시한 그리스에서는 노예 계층을 배제한 채 시민들에게만 투표권과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었으며, 근대국가 최초의 自由民主 국가인 英國조차도 처음에는 귀족과 중산층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의 극심한 투쟁의 결과로 근로자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었고, 여권이 신장된 20세기에 들어서야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스위스는 1971년에 가서야 여성에게까지 투표권이 주어지는 보통선거권을 도입했고, 미국도 1965년에 이르러서야 문맹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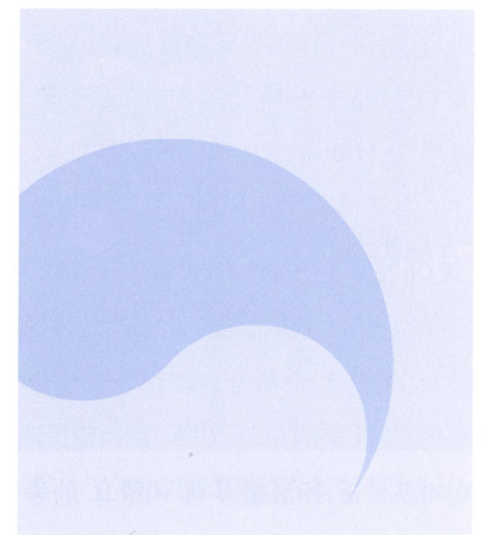
반면 大韓民國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선거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를 建國 이후 한꺼번에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大韓民國은 建國 이후 지금까지 민주화 과정에서 엄청난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어 왔습니다. 건국 초기 大韓民國 국민들이 自由를 '책임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5 _ 신생독립국 중 經濟발전과 民主化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오로지 大韓民國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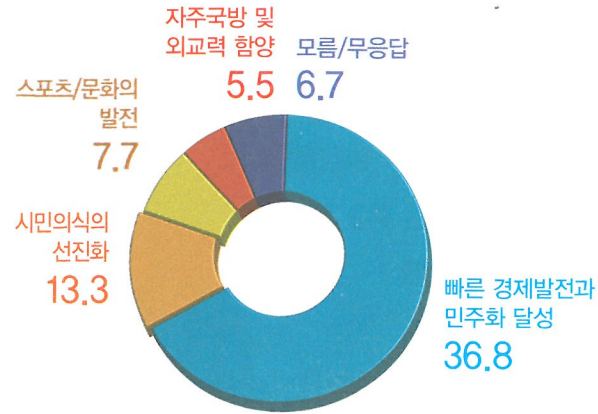
2010년 민주주의 지수

순위	국가	평균점수(10점만점)
1	노르웨이	9.8
17	미국	8.18
20	한국	8.11
22	일본	8.08
136	중국	3.14
167	북한	1.08

EIU 홈페이지



6·25 동란 이후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



2010년 전경련·리서치&리서치 조사

이후 대학생들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 자신들의 권리 관철을 위해 길거리 시위에 앞장섰고, 근로자들은 복리 후생뿐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파업과 불법행위를 일삼았으며, 정치권은 민주主義의 기본원칙인 多數決의 원리를 무시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大韓民國은 서구 선진국들이 수백년동안 쟁취해온 민주化를 단기간내에 이뤄내는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6·25 동란 직후 영국인들은 “大韓民國에서 민주主義가 성공한다는 것은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냉소를 보였지만 이제는 신생독립국 중 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대통령을 비롯 정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마음에 드는 정당을 지지해 정권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경제면에서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 등 아시아 다수국가들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大韓民國처럼 선거에 의해 與野가 민주적으로 교체되는 국가는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민주화된 국가로 평가받는 日本조차도 2차대전 이후 자민당과 그 연합세력이 중단 없이 통치하고 있을 뿐 大韓民國처럼 與野가 민주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적은 없습니다. 싱가포르도 1959년부터 이광요 前총리가 만든 인민행동당의 집권만 있을 뿐입니다.

大韓民國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민주化를 동시에 이룩해내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경제발전과 민주化에 대한 열정이 충만한 국민들이 모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 세계의 저명한 석학들은 大韓民國이 앞으로 얼마나 더 민주化되어 세계의 선진국들을 이끄는 성과를 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세계에서 제일 혹독한 共產 전체주의 국가와 세계에서 제일 앞선 민주主義를 이룩해낸 大韓民國이 병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_청와대

6 _
 大韓民國은 建國이후
 지금까지 自由民主主義
 체제를 전복하려는
 敵과 從北세력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6·25 동란 이전에도 大韓民國을 共產化 하려는 敵의 도발과 從北세력의 끊임없는 체제전복 획책이 있었습니다. 박헌영을 위시로 한 大韓民國내 從北세력은 남로당을 만들어 共產主義 이념을 퍼뜨렸고, 대구 무장폭동(1946)·제주4.3반란(1948)·여순 반란(1948) 등 共產革命을 시도하였습니다.

북한은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동란을 일으킨 이후에도 對南 적화를 위해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무력공격 등 무려 2,800여회나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또한 大韓民國 사회內 혼란을 조장하며 전쟁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自由民主主義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선동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인양(2010.4.24) _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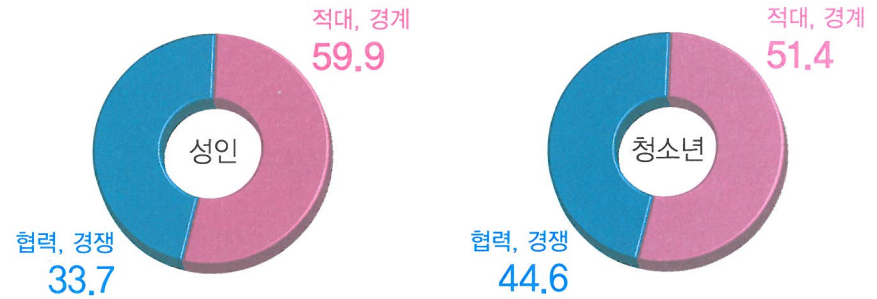
천안함 46용사 영결식(2010.4.29) _국방부

또한 大韓民國 내부에서도 또 다른 북한인 從北세력들이 맹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從北세력들은 그간 大韓民國 민주화운동 과정에 기생하여 선동과 선전으로 大韓民國 국민들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자본주의의 폐해를 부각하고, 정부를 부도덕 집단으로 매도하여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며, 建國 이래 大韓民國 안보를 유지시켜준 韓美同盟 해체와 駐韓美軍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敵의 주요 대남 도발 일지		
68.1.21	북한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 31명 청와대 습격	1명 생포, 27명 사살, 3명 북한 복귀
68.10.30~ 11.2	북한 무장공비 126명 울진·삼척 지역 침투	5명 생포·2명 자수·나머지 사살 전사 38명, 부상 64명, 민간인 피살 23명
69.12.11	KAL기 납북	탑승자 51명중 39명 70.2.14 귀환, 12명 미귀환
74.8.15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문세광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76.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미군 장교 2명 피살
83.10.9	미얀마 아웅산 테러	부총리·외무부장관 등 17명 사망·14명 중경상
87.11.19	KAL 여객기 858 공중 폭파	한국인 93명·외국인 2명·승무원 20명 등 115명 전원 사망
96.9.17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공비 25명 소탕, 잠수함 노획 전사 11명·부상 41명
99.6.15	제 1 연평해전	북한 군함 1척 격침
02.6.29	제 2 연평해전	군함 1척 침몰, 6명 전사
10.3.26	천안함 폭침	40명 사망·6명 실종
10.11.23	연평도 무력공격	군인 2명·민간인 2명 사망 및 군인 16명·민간인 3명 중경상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는 눈과 귀를 가리고 맹목적인 북한 원조에는 앞뒤를 가리지 않으며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아직도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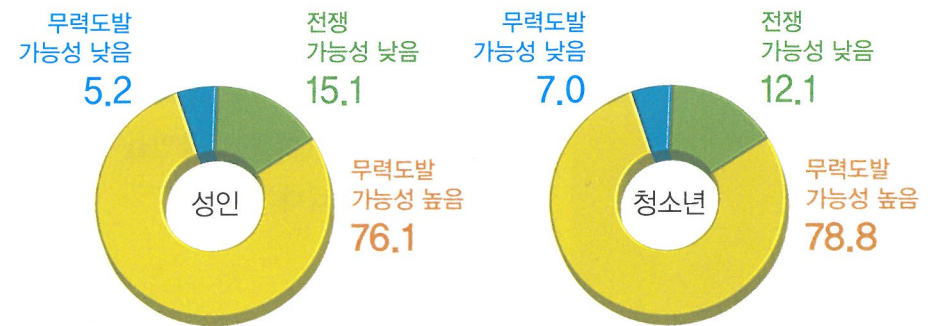
敵에 대한 인식



세계의 국가들과 심지어 共產主義를 채택한 中國과 베트남마저도 大韓民國의 산업화와 민주화 성과를 본받기 위해 애쓰고 있고 6·25 동란이 金日成과 스탈린의 공모하에 발생했다는 러시아의 외교문서들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체제 전복세력들을 볼 때 도저히 제정신을 가진 자들 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從北세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며 적화통일을 하기 위해 容共정부 수립·駐韓美軍 철수·국가보안법 폐지 등 중단 없는 對南적화 전략을 결코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現 한반도 상황 인식



2011년 6월 4일~11일 행정안전부·리서치&리서치 조사

7_ 자랑스러운 自由 大韓民國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구한말 열강의 각축속에 끝내 日帝식민지로 전락한 한반도는 日本의 패망과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共產主義 세력의 발호 가운데서도 대륙의 귀퉁이에서 기적적으로 自由民主 체제의 大韓民國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수립 이후 신생국 중 유일하게 美國의 원조경제에서 벗어나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였고, 先進國들도 해내지 못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大韓民國이 가야할 길은 멀다고 하겠습니다.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그늘에 묻혀 경쟁에 낙오되고 소외된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고, 民主主義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理想主義에만 치우친 국민들의 방종과 일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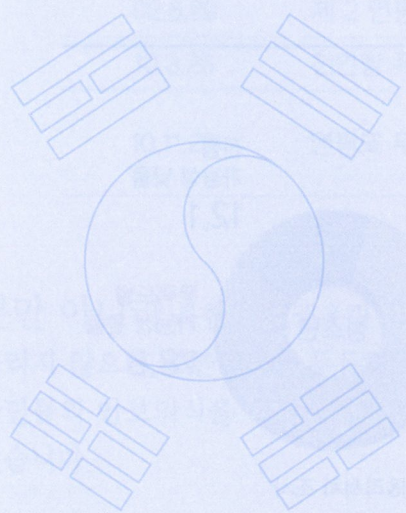
그러나 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불합리와 병폐들은 그간 많은 개선과 노력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大韓民國 국민들이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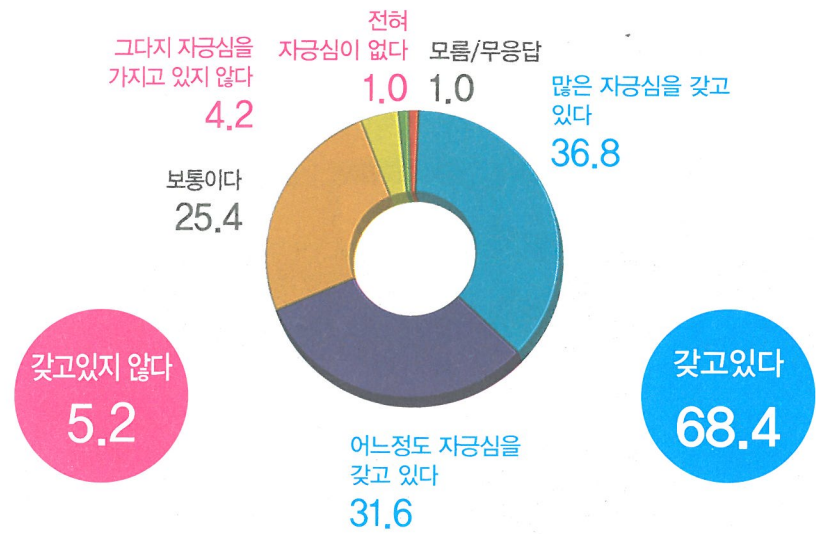
베를린 장벽 붕괴(1989.11) _국방일보

세계적인 共產主義 몰락과 敵의 비참한 실상은 이제 自由民主 체제와 共產체제와의 경쟁이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敵과 從北세력들은 大韓民國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이루어낸 위대한 성과를 무너뜨리고 번영된 한반도 전체에 굶주림과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피폐한 북한 독재정권의 통치를 물려줄 것인가, 自由民主체제로 통일된 번영된 大韓民國을 안겨줄 것인가, 그것은 大韓民國 국민 모두의 책무이자 역사적 사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



2010년 10월 4일~7일 국가보훈처

앞으로도 산업화와 민주화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체를 自由民主 체제로 統一하여 후손들이 大韓民國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대대손손 자랑스러운 自由民主主義 大韓民國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